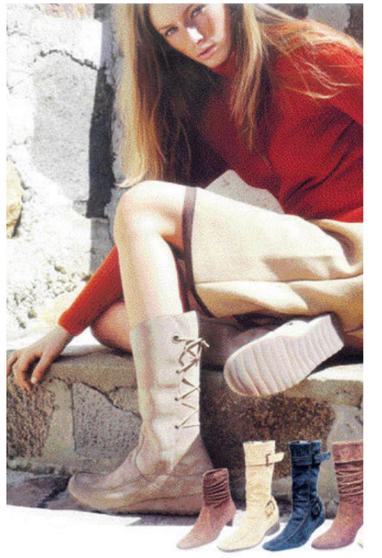


트렌드 & 스타일

거품 속 뽀 '저가 화장품' 인기

부츠 오래 신으려면...



얼룩 심하면 과감히 물로 세탁
신발 안에 종이 채워 모양 고정
통풍 좋고 습도 낮은 곳에 보관

한 철 신었던 부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신발장에 방치하면 가죽이나 모양이 망가지 다음 해에는 신기 힘든 경우가 많다.
금강제화사의 도움을 받아 부츠 오래 신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일상적인 관리가 중요>=부츠를 오래 신으려면 일상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부츠를 벗은 직후 솔을 이용해 먼지가 흩날릴 것을 가볍게 털어준다.
일반 가죽 부츠라면 먼지 제거 후 구두약을 발라 주는 것도 좋다.
스웨이드 소재 부츠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스웨이드 전용 제품으로 관리해야 한다.
스웨이드 전용 솔로 가볍게 쓸어내려 기모를 살리고, 전용 얼룩 제거제나 오염 방지 효과가 있는 전용 스프레이 등을 뿌려주면 된다.
<부츠의 최대 적은 냄새>=부츠는 보온성이 뛰어나기 하지만 통풍성이 떨어져 냄새가 나기 쉽다.
사무실 내에서는 슬리퍼나 여분의 신발을 비치해 갈아 신자.
이미 뽀 냄새를 없애려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냄새 제거제를 신발 안에 뿌린 후 살짝 흔들어 입자가 고루 퍼지게 한다.
<세척과 장기 보관>=눈이나 비로 얼룩이 진 부츠는 과감하게 물로 세탁해 보자.
가죽은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오염이 심하다면 차라리 물로 씻어내는 것이 낫다.
가죽 세탁 전용 비누인 세들승(saddle soap)을 물에 적신 스펀지에 묻힌 후, 거품을 내어 구두를 닦아 낸다.
깨끗하게 거품을 제거한 뒤 그늘에서 말린다.
부츠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신발 안에 신문지를 구겨 넣거나 뽀뽀한 종이를 말아서 안쪽에 채워 모양을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부츠는 통풍이 잘 되고 습도가 낮으며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에 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빈 박스에 방습제(실리카겔)를 함께 넣어 보관하면 더욱 좋다.

'고가 외제 화장품 부럽지 않다.' 알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중저가 화장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층이 10~20대에서 30~40대까지 확대됐으며 국산 고가 화장품이나 외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여성들도 각 브랜드의 인기있는 품목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약 5천600억원, 전국에 매장만 1천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 중저가 화장품 CF는 권상우·고소영·장동건·송혜교·성유리·김혜수 등 톱스타들의 격전장이 된 지 오래다.
현재 업계 1위는 '자연주의'를 표방한 더페이스샵.
지난 2002년 가장 먼저 런칭한 '미샤'가 재역전을 노리고 있으며 스킨푸드와 이니스프리 허브 스테이션, 에뛰드하우스, 뷰티 크레딧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더페이스샵 광주 충장로점의 서주랑(27) 점장은 "1~2만원대로 선물 세트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각 매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핫 아이템'을 알아본다.



미샤-마스카라



뷰티크레딧-수면팩



스킨푸드-블랙슈가미스크

더페이스샵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상품 중 하나는 고소영이 광고를 해 줬던 '더스킨 프레스타지 필링 킷'(2만4천900원).
외국 화장품을 경우 수십만원에 호가하는 아이템인지라 더페이스샵 상품중에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
'더 스킨 뉴트리션이펙트 아이크림'(1만6천900원)도 인기 아이템이며 3천3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의 '허브데이 클렌징폼'은 주말이면 2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인기 상품이다.

스킨푸드

'화장품은 피부가 먹는 음식'이라는 모토를 내건 스킨푸드의 대표상품은 설탕을 활용한 각질제거 제품인 '블랙 슈가 마스크'(7천700원)다.
또 쌀로 빻은 사케와 비타민 A가 풍부한 복숭아 추출물로 만든 '피치사케 토너와 로션'(각 9천원)은 모공과 피지 관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즐겨찾는 아이템이며 야삭한 상추와 오이 추출물로 만든 '상추오이 스킨과 로션'(각 9천원)도 인기다.

이니스프리 허브스테이션

에센스 타입의 고보습 상품인 '올리브 리얼 스킨'(1만2천원)은 수분 불균형으로 고민하는 20대 여성들을 겨냥해 출시한 제품이다.
'마이 시크릿 프라이머 노세뽀'(8천원)는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여 깔끔한 투명 메이크업을 돕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여성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으며 보습 물방울 수면팩 '라벤더 슬리

핑 마스크'(9천원)는 패어널 필요 없이 아침에 일어나 세안만 하면 되는 간편성 덕에 인기 아이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에뛰드 하우스

포도씨 오일과 레몬 오일 성분이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 매끈 매끈한 코로 가꾸어주는 '블랙헤드 매끈 클리어 오일 EX'(8천원)은 에뛰드 하우스 최고의 인기 아이템이다.
또 여드름 진정 후 나타나는 붉은 자국을 완화시키는 고 타입의 '깨끗한 고'(1만5천원)와 볼륨감 있고 코팅된 속눈썹을 원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마스카라 도우미 '마스카라 픽서'(6천원)도 몇몇이 여성들은 하나씩 갖고 있는 제품이다.

뷰티크레딧

나이 들면서 피부에서 빠져 나가는 코엔자임 성분을 가미한 '코엔자임 Q10 로션과 스킨'(9천800원)은 뷰티 크레딧의 베스트 셀러 상품 중 하나.
또 수면을 취하기 전 세안을 해야하는 일반 팩과 달리 얼굴에 바르고 잠을 자도 무리가 없는 다양한 라인의 수면팩 가운데 '나이트 워터팩 스위트 후루티'(4천700원)와 '발아 현미 비즈 폼 클렌징'(5천800원)도 인기 아이템이다.

미샤

색조 화장품이 강세인 브랜드다. '마스카라'(3천300원), 다양한 색상의 아이섀도우(1천500원)와 립스틱(3천300원)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더페이스샵-더스킨 프레스타지 필링 킷



에뛰드하우스-블랙헤드 매끈 클리어 오일 EX



이니스프리-마이 시크릿 프라이머 노세뽀



중저가 브랜드 스킨들은 1천원~3만원대의 다양한 상품으로 알뜰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LCE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믿음공인중개사, 금강공인중개사, 투우드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and 인애공인중개사.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